

남녀 대학생의 명시적 및 암묵적 수준에서의 부·모 애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안 상 미

방 회 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명시적 및 암묵적 수준의 부·모 애착이 주관적 안녕감에 어떠한 상대적 예측력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204명을 대상으로 친밀 관계 질문지(ECR-R), 암묵적 연합 검사(IAT), 삶의 만족도 척도(SWLS), 정적정서 및 부정적정서 척도(PANAS)가 실시되었으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남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시적 수준에서의 어머니 애착회피와 암묵적 수준의 애착인 어머니 IAT, 정적정서와 삶의 만족도에서 성차가 나타났다. 둘째, 전반적으로 명시적 수준의 부·모 애착은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변인들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났으나, 암묵적 수준의 부·모 애착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중 성차가 드러난 결과로는 남자 대학생에서만 암묵적 수준에서의 자기 IAT와 아버지 IAT가 상관을 보였고, 여자 대학생은 정적정서가 부·모 애착 하위 변인들과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명시적 수준에서의 부·모 애착은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 변인들을 유의미하게 예측하고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대학생은 어머니 애착회피가 정적정서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이었으며, 부정적정서를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남자 대학생은 부·모 애착회피, 여자대학생은 부·모의 애착불안이었다. 삶의 만족도는 이성부모의 애착회피가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부·모 애착, 주관적 안녕감, 남녀 대학생, 명시적 애착, 암묵적 애착

* 본 논문은 안상미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방회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hjbang@ewha.ac.kr

인간이 적응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와 더불어 주관적인 욕구는 중요한 측면이다. 만일 물질적인 욕구가 충족된 경우,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욕구가 중요해지며 실제 자신의 객관적인 조건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긍정적인 정체감 형성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조운주, 2007). 그 중에서도 청년기는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타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스스로 신체적, 지적,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를 형성하는 등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성과 책임감도 증가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취업난과 더불어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시기가 늦춰져 대학생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 증가하고 있다(박지현, 이명조, 2012). 김재은, 이은순, 강순화(1997)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다른 연령대 구성원보다 안녕감 혹은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바, 사회적 구성원으로써 적응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영남, 2011).

Diener(2000)는 쾌락주의적 관점을 기반으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과 더불어 정서적 측면인 낮은 부정정서와 높은 정적정서의 경험을 함께 강조했다. 따라서 주관적 안녕감을 크게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으로 나누고 삶의 만족도, 정적정서, 부정정서를 포함시켜 한 개인의 삶의 모든 측면을 측정하고자 했다.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측면인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자신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판단 과정이다(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정서적 측면인 정적정

서는 유쾌한 정서를 의미하고 에너지 수준이 높아 어떤 일이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반면에 부정정서는 혐오감, 두려움과 같은 기분 상태에서부터 스트레스가 적을 때의 침착하고 고요한 상태까지 모두 포함한다(Watson, Clark, & Tellegen, 1988).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들은 1950년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초기에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결과 나이, 지능, 직업과 같은 변인들은 설명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Gilman & Huebner, 2006), 최근에는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Diener(2000)는 여러 국가 자료를 모아 종합 분석해본 결과 주관적 안녕감을 가장 일관성 있게 예측하는 요인은 인간관계였으며, Reis와 Gable(2003)도 가장 중요 원천 중 하나가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 관계라고 결론 내려 심리적 요인 중에서도 대인관계 요인이 부각되었다.

여러 이론 중 대인관계 형성과 발달에 있어 애착 이론(attachment theory)은 강력한 틀을 제공한다(Mallinckrodt, 2000). 애착은 한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느끼는 강력한 정서적 결속으로, 생애초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선천적인 애착행동체계가 발현되어 애착 대상과 근접을 추구하게 되면서 형성된다(Bowlby, 1969). Hazan과 Shaver(1987)는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의 질적 패턴이 성인기까지 지속된다고 보고 안정애착, 회피애착, 불안-저항애착으로 나누어 특징적인 패턴을 설명했다.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2범주 4차원 애착모델을 제안하며 자기와 타인으로 2범주를 나눈 뒤 각 범주의 긍정적, 부정적 수준에 따라 4차원을 구성했다. 자기모델은 자

자기모델 (애착불안)

		긍정(Low)	부정(High)
타인모델 (애착 회피)	긍정 (Low)	<u>안정형 (secure)</u> 편안하게 친밀감을 지각, 자율적	<u>몰두형 (preoccupied)</u> 관계에 집착
	부정 (High)	<u>거부형 (dismissing)</u> 친밀감의 거부, 반-의존적	<u>두려움형 (fearful)</u>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으로 회피

그림 1.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성인 애착 모델

기 가치감과 관련된 표상으로 자신을 사랑받고 지원 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지와 관련되고, 타인모델은 타인을 신뢰롭고 가용 가능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다. 대인관계에서의 의존, 회피의 정도에 따라 애착의 질이 그림 1처럼 안정형, 몰두형, 거부형, 두려움형으로 나뉜다고 보았다. 이후 Brennan, Clark과 Shaver(1998)는 요인분석을 통해 Bartholomew 등(1991)의 2차원을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으로 수정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지각이 기준이었던 것을 애착행동전략으로 바꿔 설명하였다. 따라서 애착회피는 타인모델과 일치하는 것으로 친밀감과 의존성으로 인한 독립성 침해에 대한 공포를 반영하고, 애착불안은 자기모델과 같아 거부와 버려짐에 대한 공포를 반영한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들은 청년기를 대상으로 이 시기 중요한 발달적 이슈들에 부모애착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진행되어 왔다(Becker, Latendresse, Galen, & Luthar, 2000). 애착 연구자들은 청년기 시기에도 여전히 애착의 내적 실행 모델이 재 반영 된다고 보았고, Bretherton(1985)도 아동기와는 다른 형태로 청년기 애착행동이 나타나지만 인지적, 정서적 차원들이 여전히 남아 지속된다는 것

을 밝혔다. 청년기 애착은 스트레스,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측면(Torquati & Raffaelli, 2004)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enny(1987)는 긍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한 청년들은 독립 후의 환경에 잘 적응하며, 자신의 사회적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또래 관계 및 이성 관계에서도 부모애착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조영주, 최해림, 2001), 청년기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확립 및 분리-개별화(separation-individuation)와 애착과의 연구도 진행되어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인수록 청년기의 분리와 독립 과정이 순조롭게 잘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loom & Bloom, 1987). 마찬가지로 Moore(1987)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분리를 잘 한 경우에 심리적 안정과 분리의 정도는 부모와의 좋은 관계 유지와 정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생들에게는 자아정체감 중에서도 특히 진로정체감 형성이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인데 부모애착은 성취동기, 진로태도성숙,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도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다(박은선, 이재창, 2009; 심호규, 강문희, 2007).

주관적 안녕감에 인간관계의 근본인 애착이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에도 연구는 많지 않아

이해가 부족하지만, 부모애착이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이 밝혀졌다(Ling, Jiang & Xia, 2008). Wearden, Perryman과 Ward (2006)는 정적정서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안정애착과 회피애착 유형을 가진 참가자들이 몰두형이나 두려움형 애착유형을 가진 참가자들보다 유의미하게 더 낮은 수준의 부적정서를 나타냄을 확인했다. 최근 연구들에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과 주관적 안녕감 사이에 정적인 관련성이 있음이 나타나고 있지만, 주관적 안녕감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결과가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Perlman, 2007).

마찬가지로 청년기 애착과 주관적 안녕감의 선행연구들에서 성차 관련 결과들도 일관되지 못한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Allen, McElhane, Kuperminc, & Jodl, 2004) 일부 연구에서는 남성들이 애착회피 성향이 높고, 여성들은 애착불안의 성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Feeney, Noller & Hanrahan, 1994). 또한 아버지 애착과 어머니 애착의 영향력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여(Lopez, 1989) 일치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 성차는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 변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Haller와 Hadler(2006)의 연구에 따르면 전반적인 행복과 삶의 만족도 모두 여성들이 높게 나타난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관적 안녕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yyash-Abdo & Alamuddin, 2007). 하지만 반대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고(Suhail & Chaudhry, 2004), 삶의 만족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Michalos, 1991). 정서적 요인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행복과 긍

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반면(Fujita, Diener, & Sandvik, 1991), 43-102세의 성인 2529명을 대상으로 한 Koo, Rie와 Park (2004)의 연구 결과에서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많은 부적정서와, 더 적은 정적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들이 일치되지 못하므로 성별을 고려해 부모애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는 더 의미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애착연구들 전반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애착연구들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먼저, 초기 애착 연구는 대부분 어머니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상대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Cabrera, Tamis-LeMonda, Bradley, Hofferth, & Lamb, 2000). 하지만 최근에 부모 모두를 고려했을 때, 어머니 애착과 아버지 애착의 영향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Ross & Furtres, 2010). Grossmann, Grossmann, Fremmer-Bombik, Kindler, Scheuerer-Englishch, & Zimmermann(2002)의 종단 연구에서 영아기 때 아버지와 활동적이고 민감한 놀이를 통해 형성된 애착표상과 청소년기의 아버지 애착표상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져 어린 시절 아버지와 형성한 애착관계가 청소년기 이후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내 연구에서도 분리-개별화(장휘숙, 2002), 대학적응(백지숙, 2000)에서 어머니 애착보다 아버지 애착이 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바, 이처럼 청년기 발달과 적응에 아버지 애착만의 고유한 관련성과 영향력이 있으므로 애착연구에 있어 부·모 각각의 애착표상을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성인에게 암묵적 수준의 애착을 고려하지 못했던 점이다. 애착연구의 대표

적인 학자인 Bowlby(1973)는 애착은 내적 실행 모델(internal working model; IWM)에 의한 기체이며, 이러한 내적 실행 모델은 자동성의 정도에 따라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의식적인 수준까지 한 개인이 동시에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Spangler와 Zimmermann(1999)은 개인의 연속적인 발달과정 속에서 내적 실행 모델은 무의식적인 수준인 초기애착체계에서부터 인지적 표상수준의 체계까지 3단계로 조직화됨을 제안했다. 그리고 인생 초기에 형성된 모델이 더욱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이며, 최근에 형성된 모델일수록 의식적 수준 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성인애착연구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러한 측정은 어린 시절 부모와 형성한 내적 실행 모델일수록 암묵적일 가능성이 커 질문지로 측정되지 못했을 수 있으며, 사회적 바람직성 및 체면의 식으로 인해 반응이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Nisbett & Wilson, 1977).

그래서 이후 Main과 Goldwyn(1985)은 성인애착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을 개발하여 무의식적인 측면의 내적표상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 면접법은 자기보고식 애착 측정의 한계점을 보완하기는 하나 숙련된 면접자가 실시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어 사용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암묵적 연합 검사를 이용하여 애착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났다.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는 Greenwald, McGhee와 Schwartz(1998)가 심리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을 연합시키려 할 때 반응에서 오류가 나고 느려지는 현상을 응용하여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고자 개발한 방법이다.

이를 응용하여 Veletanlic(2007)은 Bartholomew 등(1991)의 모델을 기반으로 애착을 측정하는 IAT를 개발했다. IAT는 한번에 1가지 구조만 측정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어, 하나의 IAT 프로그램이 하나의 애착차원을 측정하도록 개발했다. 자신에 대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모델(애착불안) 차원은 자기 IAT로, 특정 타인에게 접촉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타인모델(애착회피) 차원은 타인 IAT로 측정하였고, 이후 연구에서 애착 IAT는 명시적 애착 측정치와는 다른 측면을 측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en, Wang, Yang, Li, & Higgins,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남녀대학생들의 부·모 애착이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정서적 하위요소에 대해 어떠한 상대적 예측력을 보이는 알아보고자 한다. 명시적 수준의 내적 실행 모델 측정과 더불어 IAT를 이용한 암묵적 수준의 내적실행 모델을 모두 측정할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성차 결과가 일치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부모자녀관계의 부모, 자녀 성별을 모두 포함하여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수준의 애착, 주관적 안녕감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부·모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수준의 애착, 주관적 안녕감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3. 성별에 따라 부·모의 명시적 및 암묵적 수준의 애착은 주관적 안녕감에 어떠한 상대적 예측력을 가지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실험 참가 모집 공고를 통해 모집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218명으로, 사전 실험 동의 하에 실험이 진행되었다. 본 대상자들 중 설문지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암묵적 애착 검사의 점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14명이 제거되어 최종 분석에서는 204(93.6%)명만 포함되었다.

먼저 남학생이 95(46.6%)명, 여학생이 109(53.4%)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남학생이 23.83(SD=2.15)세, 여학생이 22.33(SD=1.45)세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이 19명(9.3%), 2학년이 54명(26.5%), 3학년이 59명(28.9%), 마지막으로 4학년이 72명(35.3%)으로 4학년이 가장 많았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대부분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었다. 소득수준은 83.9%, 가정 분위기는 92.7%로 모두 보통 이상으로 보고 하였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함께 사는 가정이 96.6%였다. 이처럼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 소득수준, 분위기 및 가정의 형태를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들은 전체 인구 집단의 일반적 특

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측정도구

명시적 애착 질문지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의 ECR-R을 김성현(2004)이 번안한 친밀 관계 경험 질문지(The Korean version of 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ECRR-K)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애착의 기본적 두 차원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를 측정하는 각 18문항,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까지 7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각 차원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애착 차원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애착회피 및 애착불안에서 각각 18-126점이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애착불안이 .89, 애착 회피가 .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애착불안, 애착회피의 Cronbach's α 는 어머니가 각각 .85과 .96이었고, 아버지는 각각 .88과 .96으로 나타났다.

암묵적 연합 검사

본 연구에서는 암묵적 수준에서의 부·모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 Greenwald, McGhee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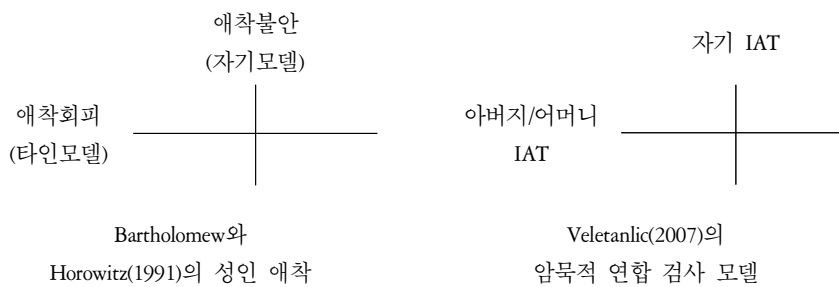


그림 2. 암묵적 연합 검사의 이론적 모형

Schwartz(1998)가 개발한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를 이용하여 컴퓨터 실험을 진행하였다. IAT는 특정 대상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이분화된 표적 자극과 긍정적/부정적과 같은 속성 자극을 연합시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연합이 잘 된 범주들을 같이 분류하는 것이 그렇지 않는 범주의 분류보다 더 쉽다고 가정하여 더 빠르게 응답할 것이라고 본다.

애착 IAT는 2범주 4차원 애착 모델에 근거하므로,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애착불안 차원의 측정은 자기 IAT로, 애착회피 차원의 측정은 아버지 IAT와 어머니 IAT로 대응된다. 본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를 2축으로 하여 애착범주가 구성되므로 아버지, 어머니 IAT와 각각 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IAT를 2번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인을 대상으로 부·모 애착을 모두 시행하고 애착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지 않으므로 자기 IAT를 1번만 시행하여, 총 3세트의 IAT를 수행하였다. 또한 3세트가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로 반복시행횟수를 원래 프로그램화된 시행 횟수의 절반으로 축

소시켜 실시하였다. 사용된 각 시행 단계는 표 1에 제시되었다. 각 시행에서는 컴퓨터 화면에 제시되는 2가지 범주의 표적자극과 2가지 범주의 속성 자극을 키보드의 D(○)와 K(⊖)키를 사용하여 2가지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 IAT의 표적 자극은 자기 혹은 타인과 관련된 유의어이며, 속성 자극은 안정 혹은 불안과 관련된 단어들로 구성되어 각각 5개씩 단어를 사용하였다. 아버지 IAT와 어머니 IAT는 아버지/어머니 혹은 타인과 관련되는 유의어들이 표적 자극, 접근 혹은 회피와 관련되는 단어들인 속성자극으로 각각 5개의 유의어들로 구성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단어는 김미주(2012)의 연구에 사용된 것을 기반으로 하되 “어머님”이라는 단어가 혼란을 주어 “모친”이라는 단어로 수정하고, 아버지에 대한 단어들은 어머니 단어들과 유의하게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IAT를 통해 산출된 결과처리는 평균 잠재 반응 시간에서 최초 조합파제의 평균 잠재 반응 시간을 뺀 값을 각 블록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얻어진 D 점수를 이용한다(Greenwald, Nosek & Banaji, 2003). 3, 4단계와 6, 7단계의

표 1. 자기(부/모) IAT의 실시 절차

단계	시행 횟수	기능	왼쪽 반응키에 할당된 항목 (D 키)	오른쪽 반응키에 할당된 항목 (K 키)
1	10	연습	자기(부/모) 단어	타인 단어
2	10	연습	안정(접촉) 단어	불안정(회피) 단어
3	10	연습	안정(접촉) 단어+자기(부/모) 단어	불안정(회피) 단어+타인 단어
4	20	실전	안정(접촉) 단어+자기(부/모) 단어	불안정(회피) 단어+타인 단어
5	10	연습	타인 단어	자기(부/모) 단어
6	10	연습	안정(접촉) 단어+타인 단어	불안정(회피) 단어+자기(부/모) 단어
7	20	실전	안정(접촉) 단어+타인 단어	불안정(회피) 단어+자기(부/모) 단어

결과만 이용하여 D값이 계산되며, D점수가 0보다 클수록 자기에 대해 안정된다고 느끼고, 0이하 이면 자기에 대해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암묵적 태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한다. 애착회피(타인모델) 해석은 D점수가 0보다 클수록 아버지/어머니에 대해 접촉가능하다 느끼고, 0이하이면 회피적인 암묵적 태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은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나누어 측정하였다. 인지적 측면인 삶의 만족도 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는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하고 조명환, 차경호(1998)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까지 7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본다. 기존 연구의 Cronbach's α 는 .81이었고(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정서적 측면은 Watson, Clark과 Tellegen(1988)이 개발한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ale; PANAS)를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2003)가 번안하고, 기존 원 척도를 기반으로 ‘기민한’을 정적정서에 포함시킨 김미주(2012)의 수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적정서와 부적정서 모두 10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적정서, 부적정서를 느끼는 정도가 큰 것으로 본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미주(2012)의 Cronbach's α 는 정적정서가 .79, 부적정서가 .87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정적정서가 .84, 부적정서가 .85으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의 실험은 남녀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피험자들은 3세트의 IAT에 대한 실시 방법과 주의사항을 듣고 IAT를 먼저 실시한 후에 애착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된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수행하였다. 검사의 실시는 특정 시간에 연구 참여가 가능한 학생들에 한해서 교내 컴퓨터실에서 집단으로 실시하였고, 그 외의 학생들은 14인치 노트북 2대를 가지고 검사자와 피험자가 1:2 혹은 1:3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주변 환경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함을 유지했으며, 애착 설문지의 경우 ‘다른 사람’ 혹은 ‘상대방’이라는 단어를 본인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올리며 평정을 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와 IAT시행에 있어 순서효과나 연습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자기 IAT, 어머니 IAT, 아버지 IAT의 순서와 설문지 내의 아버지 애착, 어머니 애착의 순서를 피험자마다 무선으로 배정하였다. 전체 실험 시간은 3세트의 IAT 총 시행이 10~15분, 설문지 작성이 15~20분 정도로 총 25~35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분석

자료처리 및 분석은 SPSS/PC+ version 18.0을 이용하고 연구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명시적 애착, 암묵적 애착, 주관적 안녕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다음

으로 세 주요 변인간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모의 명시적 및 암묵적 수준의 애착이 성별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에 어떠한 상대적 설명력을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남녀 대학생으로 나누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

각 변인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집단 *t*-test를 실시하였다. 제시된 표 2를 보면 독립변인인 명시적 애착에서의 어머니 애착회피[t=1.96(202), *p*<.10]와 암묵적 애착에서의 어머니 IAT[t=-2.41(172.92), *p*<.05]에서 성별에 따라 다른 경향성을 보였

다. 그리고 종속변인인 정적정서[t=3.57(202), *p*<.001]와 삶의 만족도[t=1.75(202), *p*<.10]에서도 남녀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명시적 수준에서의 어머니 애착회피 점수는 남자 대학생이 더 높았으며, 암묵적 수준의 어머니 IAT D점수는 여자대학생들이 더 높았다. 또한 주관적 안녕감에서의 정적정서와 삶의 만족도 모두 남자 대학생들이 더 높게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명시적 및 암묵적 수준에서의 부·모애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명시적 및 암묵적 수준에서의 부·모애착과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차를 고려해 각각 남녀로 나누어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전반적으로

〈표 2〉 주요 변인들의 평균에서의 성차

	변인	남자(n=95)	여자(n=109)	<i>t</i>	
		평균(표준편차)			
명시적 애착	ECR	모애착불안	40.96(11.65)	42.12(14.10)	-0.64
		모애착회피	48.15(18.98)	43.05(18.17)	1.96 [†]
		부애착불안	44.83(13.35)	42.99(14.78)	0.93
		부애착회피	62.93(23.11)	61.39(22.15)	0.48
암묵적 애착	IAT	자기 IAT	0.59(0.40)	0.65(0.42)	-0.96
		어머니 IAT	0.45(0.44)	0.58(0.33)	-2.41*
		아버지 IAT	0.39(0.41)	0.47(0.36)	-1.51
주관적 안녕감	PANAS	정적정서	33.83(6.62)	30.58(6.37)	3.57**
		부적정서	25.51(6.96)	26.78(8.34)	-1.18
	SWLS	삶의 만족도	22.49(5.50)	21.14(5.53)	1.75 [†]

주. ECR: 친밀 관계 경험 질문지/ IAT: 암묵적 연합 검사

PANAS: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 척도 / SWLS: 삶의 만족도 척도

[†] *p*<.10, **p*<.05, ***p*<.001

〈표 3〉 남녀 집단별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N=204)

	명시적 애착				암묵적 애착			주관적 안녕감			
	ECR				IAT D 점수			PANAS		SWLS	
	1	2	3	4	5	6	7	8	9	10	
1. 모애착불안	-	.42**	.81**	.40**	-.04	.07	.01	.01	.25*	-.27**	
2. 모애착회피	.56**	-	.36**	.66**	-.01	.06	-.04	-.23*	.26*	-.49**	
3. 부애착불안	.67**	.34**	-	.49**	-.05	.22*	.05	.03	.28**	-.29**	
4. 부애착회피	.50**	.45**	.59**	-	-.04	.05	.06	-.23*	.40**	-.53**	
5. 자기 IAT	-.12	-.05	-.00	.12	-	.30**	.31**	-.01	.10	.12	
6. 어머니 IAT	-.13	-.05	.00	.07	.26**	-	.27**	.07	.19	-.11	
7. 아버지 IAT	-.16	-.06	-.09	-.18	.13	.37**	-	-.01	-.05	.03	
8. 정적정서	.10	.04	-.01	-.07	.01	.13	.02	-	-.38**	.37**	
9. 부정정서	.47**	.25**	.49**	.34**	-.14	-.08	-.16	-.01	-	-.41**	
10. 삶의 만족도	-.22*	-.21*	-.30**	-.44**	.04	-.06	.03	.38**	-.34**	-	

주. 대각선 위: 남자(n=95) / 대각선 아래: 여자(n=109)

* $p < .05$, ** $p < .01$

남녀 대학생 모두 명시적 수준의 어머니 애착 변인들과 아버지 애착변인간의 관련성이 있었으며,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적정서를 제외하고 남녀 모두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명시적 수준의 애착 차원인 어머니 애착불안은 부적정서와 정적상관(남 $r = .25, p < .05$, 여 $r = .47, p < .01$)이 있었으며, 삶의 만족도와는 부적상관이 있었다(남 $r = -.27, p < .01$, 여 $r = -.22, p < .05$). 아버지 애착불안도 마찬가지로 부적정서와 정적인 관련성(남 $r = .28, p < .01$, 여 $r = .49, p < .01$), 삶의 만족도와 부적인 관련성을 보였다(남 $r = -.29, p < .01$, 여 $r = -.30, p < .01$). 애착회피 차원도 애착불안 차원과 유사한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성을 보이기는 했으나 정적정서에서 성차가 나타났다. 남자 대학생에서만 부모 애착회피가 정적정서와 부적인 관련성을

보였고(아버지 $r = -.23, p < .05$, 어머니 $r = -.23, p < .05$), 여자 대학생은 부모의 애착회피, 애착불안 차원 모두 다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암묵적 수준의 애착은 남녀 모두에게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변인들과의 유의한 관련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IAT 하위변인들 간에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에서 자기 IAT와 어머니 IAT간의 정적 상관이 유의미하였으며(남 $r = .30, p < .01$, 여 $r = .26, p < .01$), 특징적으로 남자 대학생들에서만 자기 IAT와 아버지 IAT에서 정적인 관련성이 있었다($r = .31, p < .01$).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부·모애착의 예측력과 성차

본 연구에서는 명시적 수준 및 암묵적 수준

의 부·모 애착이 주관적 안녕감에 어떠한 상대적 예측력을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차를 고려하여 각각 남녀로 나누어 살펴보고, 명시적 수준과 암묵적 수준의 애착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어머니를 애착 대상으로써 주로 연구가 진행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제 1단계에서는 어머니 애착변인들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제 2단계에서는 아버지 애착변인들을 투입하여 어머니 애착을 통제된 후에도 아버지 애착이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예측력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명시적 수준의 부·모 애착은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암묵적 수준의 애착변인들은 앞선 상관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유의한 예측력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는 명시적 수준의 애착변인 회귀분석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정적정서. 정적 정서를 예측하는 명시적 수준의 부모애착변인들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결과에 따르면 남자대학생은 어머니 애착회피만이 정적정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beta=-.28, p<.05$). 하지만 여자대학생의 경우 명시적 수준에서의 부·모 애착변인 모두 정적정서에 대해 유의미한 예측력을 보이지 않아 차이가 있었다. 즉 남자대학생은 어머니와의 애착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긍정적 정서수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서. 표 5는 명시적 애착수준에서의 부·모 애착이 부적정서에 대해 남녀 각각 어떠한 상대적 예측력을 가지는지 알아본 결과이다. 성별에 따라 결과를 보면, 남자대학생의 경우 어머니 애착회피가 부적정서를 예측하는 경향이 있었으며($\beta=.19, p<.10$), 이후 어머니 애착 변인을 통제된 후에도 아버지 애착회피가 부적정서를 예측하여($\beta=.37, p<.01$), 추가적인 8%의 설명력을 보였다($F(2, 90)=4.70, p<.01$). 여자대학생은 어머니 애착불안이 부적정서를 유의미하게 예측했고($\beta=.48, p<.001$) 추가적으로 아버지 애착불안도 부적정서를 예측했다($\beta=.30, p<.01$). 따라서 남녀 대학생 모두

<표 4> 어머니, 아버지의 애착불안, 애착회피(ECR-R)의 정적 정서에 대한 예측력

변인	남자, 정적 정서 (n=95)						여자, 정적 정서 (n=109)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모 애착불안	0.07	0.06	.13	0.01	0.10	.02	0.05	0.05	.12	0.10	0.07	.22
모 애착회피	0.10	0.04	-.28*	-0.05	0.05	-.15	-0.01	0.04	-.02	0.00	0.04	.01
부 애착불안				0.09	0.09	.18				-0.04	0.06	-.09
부 애착회피				-0.07	0.04	-.23				-0.04	0.04	-.13-
R^2	.06			.09			.01			.03		
ΔR^2				.03						.02		
F	3.13*			2.23*			0.60			0.88		

* $p<.10$, * $p<.05$, ** $p<.01$, *** $p<.001$

<표 5> 어머니, 아버지의 애착불안, 애착회피(ECR-R)의 부적 정서에 대한 예측력

변인	남자, 부적 정서 (n=95)						여자, 부적 정서 (n=109)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모 애착불안	0.10	0.07	.17	0.06	0.10	.09	0.28	0.06	.48***	0.15	0.08	.25 [†]
모 애착회피	0.07	0.04	.19 [†]	-0.01	0.05	-.04	-0.01	0.05	-.02	-0.01	0.05	-.02
부 애착불안				0.02	0.09	.03				0.17	0.07	.30**
부 애착회피				0.11	0.04	.37**				0.02	0.04	.053
R^2	.09			.17			.22			.28		
ΔR^2				.08						.06		
F	4.68*			4.70**			14.71***			9.89***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부·모 애착변인이 부적정서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요인에서 성차가 발견되었다. 남자대학생의 경우 부·모 모두 애착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부적정서를 더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대학생은 부·모 모두 애착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부적정서를 더 보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애착변인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표 6>. 우선 남자대학생의 경우 부·모 애착 모두 애착회피가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기는 했으나(모 $\beta = -.45$, $p < .001$, 부 $\beta = -.36$, $p < .01$), 아버지 애착회피보다 어머니 애착회피가 24%로 더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

<표 6> 어머니, 아버지의 애착불안, 애착회피(ECR-R)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예측력

변인	남자, 삶의 만족도 (n=95)						여자, 삶의 만족도 (n=109)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모 애착불안	-0.04	0.05	-.08	-0.01	0.07	-.02	-0.06	0.04	-.15	0.02	0.05	5.05
모 애착회피	-0.13	0.03	-.45***	-0.07	0.04	-.24 [†]	-0.04	0.03	-.13	-0.01	0.03	-.03
부 애착불안				-0.01	0.07	-.01				-0.03	0.05	-.08
부 애착회피				-0.09	0.03	-.36**				-0.10	0.03	-.41**
R^2	.24			.31			.06			.20		
ΔR^2				.07						.14		
F	14.58***			10.26***			3.43*			6.48***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타났다[F(2, 92)=14.58, $p<.001$]. 반면 여자대학생의 경우 아버지 애착회피만이 유의미하게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였고($\beta=-.41$, $p<.01$) 14%의 설명력을 보였다[F(2, 104)=6.48, $p<.001$]. 즉 남자대학생과 여자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이성 부모의 애착회피 변인이 유의미한 예측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자대학생은 어머니 애착회피 수준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고, 여자대학생의 경우에는 아버지애 대한 애착회피 수준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를 더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서울 소재에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4명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명시적 및 암묵적 수준에서의 부·모 애착이 성별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명시적 및 암묵적 수준에서의 어머니 애착변인,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변인인 정적정서와 삶의 만족도에서 성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애착회피 수준은 남자대학생들이 더 높고, 어머니 IAT점수는 여자대학생들이 더 높았다. 명시적 수준의 애착회피와 암묵적 수준의 어머니/아버지 IAT는 이론적으로 같은 축에 해당하지만, IAT는 D 점수가 높을수록 더 접촉가능하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하게 때문에 각 점수에 대한 해석은 반대가 된다. 따라서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보다 명시적 수준 및 암묵적 수준 모두 어머니와 더 가깝고, 친밀하게 느끼는 경향

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Bartholomew 등(1991)의 연구에서 남학생의 애착회피 수준이 여학생보다 높았던 결과와 일치하지만, 부모애착에서 성차가 나지 않았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이다(Wilkinson, 2004). 이 같은 차이는 사회화의 차이로서 남자는 대인관계보다 독자성과 개인적 성취를 더 지향하는 반면, 여자는 관계지향적인 특성을 가진 것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Pietromonaco & Carnelley, 1994). 또한 여자 대학생들이 암묵적으로 더 어머니와 접촉가능하다 느끼는 점은 5개국의 부모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한 결과 한국, 일본 및 독일에서 딸이 어머니와 더 지지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결과(이선이, 이여봉, 김현주, 2008)와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변인 중 정적정서와 삶의 만족도가 남자 대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Koo, Rie, & Park (200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삶의 만족도를 느끼는 정도에 성차가 없음을 보고한 Michalos(1991)의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여성은 정서나 발상을 담당하는 우뇌가 발달되어 있는 반면, 남자는 사고나 기억을 담당하는 좌뇌가 더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남자보다 여성들이 정서적인 측면에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감능력 또한 더 발달되어 있다(Billington, Baron-Cohen, & Wheelwright, 2007).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여성들이 주어진 상황이나 현상에 대해 이면의 것들을 더 생각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므로 정적정서를 덜 경험하거나 삶의 만족도를 낮게 지각했을 수 있다.

명시적 및 암묵적 수준에서의 부·모애착과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변인들을 상관 분석한

결과, 남자대학생들의 아버지 애착불안과 암묵적 수준의 어머니 IAT가 $r=.22$ 로 낮은 관련성을 보이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명시적 수준의 애착과 암묵적 수준의 애착간의 관련성은 없었다. 이 결과는 Nosek(2007)과 논리적으로 일관되어, 한 개인이 자동성의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차원의 내적 실행 모델을 가진다는 기본 이론을 지지한다(Bowlby, 1973). 따라서 암묵적 연합 검사와 자기보고식 질문지가 서로 다른 수준의 애착을 측정했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명시적 수준의 부·모 애착은 남녀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 변인들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애착의 불안, 회피가 삶의 만족도와 부적으로, 부적정서는 정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나타난 연구들과 같다(Ling, Jiang, & Xia, 2008). 하지만 여자대학생의 경우 명시적 수준의 애착은 정적정서와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아 안정애착을 가진 개인이 더 높은 수준의 정적정서를 보고한다는 연구결과와 상충되었다(Kerr, Meeley, Travea, & Pole, 2003). 반면, 암묵적 수준에서의 부·모 애착은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Ren 등(2011)의 연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미주(2012)의 연구에서 $r=.2$ 수준의 관련성이 나온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최근야 암묵적 수준의 애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므로 두 변인의 관련성에 대해 일반적 결론을 내리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종속변인과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암묵적 수준의 애착 하위 변인들 간의 관련성에서 성차가 나타났다. 남녀 대학생 모두 자기 IAT와 어머니 IAT간의 정적

인 상관성이 드러났지만 남자대학생들에게는 자기 IAT와 아버지 IAT간의 상관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남녀 대학생 모두 암묵적으로 자신에 대해 안정적으로 느낄수록 어머니를 더 가깝게 느낀다고 볼 수 있으며, 남자대학생들의 경우엔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암묵적으로 접촉가능하다고 느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Bartholomew 등(1991)의 모델에서 안정형(secure)을 가진 사람들의 성향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신체적으로 더 자극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놀이를 하는 경향과 2세 남아들의 경우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을 더 좋아한다는 연구결과(Lamb, 1976b)를 고려해보면, 남자대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암묵적인 수준에서 더 아버지를 접촉 가능한 대상으로 표상을 형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명시적 및 암묵적 수준의 부모애착이 주관적 안녕감을 얼마나 예측하는지 남녀로 나누어 분석해본 결과,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데 암묵적 수준의 애착변인들 모두 설명력이 부족하였다. 하지만 명시적 수준의 부·모 애착은 세 가지 하위변인 모두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력을 보였다. 먼저 정적정서에서는 남자대학생의 경우 명시적인 어머니 애착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정적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대학생은 명시적 수준의 부·모 애착이 정적정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는 즐거운 환경 속에 참여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 정적정서를 높게 경험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Watson, Clark, Tellegen, 1988)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사람들과 통합되는 것이 어려워 관계를 회피하게 되고 결국 정적정서를 경험할 기회가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명시적 수준의 부·모 애착 모두 여자 대학생들의 정적정서를 예측하지 못했던 점은 여성들이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에는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 있다. 정서 경험과 표현에 있어 여성들은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기대되는 역할(Brody & Hall, 1993), 상호작용대상의 성별(Snell, Miller, & Belk, 1988), 친밀함의 정도(Dindia & Allen, 1992) 등에 따라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여성들이 정서 경험과 표현에 있어 매우 다양한 변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부·모 애착변인의 설명력이 미미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두번째로 부적정서 변인에서는 남자대학생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애착회피의 수준이 높을수록 부적정서를 더 많이 보고하고, 여자대학생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애착불안의 수준이 높을수록 부적정서를 더 보고하는 것으로 드러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남자가 보다 회피 경향이 높고, 여자는 남자보다 불안 수준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 Feeney, Noller, Hanrahan(199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자율성, 독립과 같은 심리적 발달을 추구하는 남성들의 특성과 관계, 유대, 공감, 친교와 같은 심리적 발달을 추구하는 여성들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Lapsley, Rice, FitzGerald, 1990). 회피애착일 경우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부적정서를 더 빈번하게 경험하고, 일상적인 장면에서는 정서적 단절을 많이 하게 되어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안하얀, 서영석, 2010). 그리고 여자대학생의 결과는 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이러한 관련 단서에 민감함에 따라 애착 체계의 활성화가 과도하

게 이루어져 심리적인 고통을 더 겪게 것과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다(Mikulincer & Shaver, 2005).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은 남녀 모두 애착회피로 애착회피 수준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각 이성 부모의 애착회피 수준이 더 큰 영향력을 보여 남녀 간의 차이를 보였다. 기본적으로 애착회피가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것은 회피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관계 속에서의 갈등해결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이 부족해 회피하는 경향성이 있고(Creasey, Kershaw, & Boston, 1999), 내적 응집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Mikulincer & Orbach, 1995)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확대된 사회적 관계 내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일수록 삶의 만족이 더 낮을 수 있다.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데 아버지, 어머니의 상대적 영향력이 다른 것은 이 시기의 적응적인 발달을 위해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분리-개별화를 통해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 이해해 볼 수 있다(Bloom & Bloom, 1987).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의 64%가 3~4학년인 것을 고려했을 때, 자아정체감 중에서도 진로정체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청년기 부모애착에서의 모-자 관계나 부-녀 관계와 관련한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지만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에 있어 이성부모의 애착이 유의미한 관련성과 설명력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 애착과 진로정체감에 대해 연구한 Lopez (1989)는 이성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수준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진로정체감을 형성한다고 밝혔으며, 김은진과 천성문(2001)의 연구 결과

에서도 남자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에 어머니 애착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다소 제한적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추론해보면 이성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대학생들은 중요 과업인 진로정체감 형성, 진로결정수준이 긍정적이므로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

명시적 수준의 애착과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의 관계를 종합해보면 남자 대학생들은 여자 대학생들보다 부모로부터 더 독립적이고 자율적일수록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 더 나은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자 대학생들은 개인 내적인 변인보다는 부모와의 관계성에 더 초점을 두어 관계의 질이 어떠한지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을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가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암묵적 수준의 부·모 애착은 남녀 대학생 모두에게서 유의미하게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변인들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는 Ren 등(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결과에 대한 이해는 종속변인의 특성과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애착 이론에 따르면 애착 체계의 활성화는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아프거나 피로한 상황에서 더 쉽게 일어난다(Bartholomew, 1990). 또한 Barse와 Kowalick(2007)는 암묵적 태도가 스트레스적인 환경에서 안녕감과 유의미하게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측정된 주관적 안녕감은 특정 위험상황과 관련된 판단이나 질문이 아닌 자신의 '현재를 포함한 지난 한 달간' 경험한 정서적 경험과 스스로 느끼는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인지적 통제 하에 측정된 주관적 안녕감은 암묵적인 애착

체계의 측정치와 관련성이 부족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애착의 영향력에 있어 남녀가 차이가 있음을 밝혀낸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는 대학생들을 위한 지지적인 상담 장면에서 남녀 간의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주로 어머니에 초점이 맞춰있던 애착연구에 아버지를 애착 대상으로 함께 고려하고 동시에 자녀의 성별 또한 포함시킴으로써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셋째, 한 개인이 여러 가지 수준의 내적 실행 모델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에 제안된 암묵적 연합 검사를 이용하여 암묵적 수준의 애착 측정을 시도해 보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들의 경우 초기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를 형성한 이후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확대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면서 또래 애착 및 이성 관계와의 애착도 정서적 경험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 애착과 더불어 또래 애착 및 이성 관계 애착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암묵적 수준의 부·모 애착은 남녀 모두에게서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들에 유의한 예측력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야 암묵적 연합검사를 이용해 암묵적 수준의 애착을 측정할 만큼 명시적 수준의 애착과의 연계, 암묵적 수준의 종속변인의 측정과 더불어 암묵적 수준의 애착과 관련된 새로운 변수 탐색에 대한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 표집된 연구대상의 수가 적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제

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더 다양한 연구대상을 표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남 (2011).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부모애착, 동료애착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교육학연구*, 17(1), 246-269.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 김미주 (2012). 남녀 중학생의 애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애착의 명시적 및 암묵적 수준에서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장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재은, 이은순, 강순화 (1997). *한국대학생의 삶의 만족도*. 서울: 집문당
- 날말어휘정보처리연구소 (2010). *우리말 유의어 중사전 및 우리말 반의어 사전*. 서울: 날말어휘정보처리연구소.
- 박은선, 이재창 (2009). 아버지애착과 지지가 대학생의 진로탐색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0(2), 947-965.
- 박지현, 이명조 (2012). 대학생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2), 1-19.
- 백지숙 (2000).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존중감,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리학회지*, 18(1), 127-137.
- 심호규, 강문희 (2007). 부모의 애착수준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포부 그리고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심리치료*, 7(2), 1-17.
- 안하얀, 서영석 (2010). 성인애착, 심리적 디스트레스, 대인관계문제: 피드백에 대한 반응, 정서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575-603.
- 이선이, 이여봉, 김현주 (2008).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성별에 따른 지지적·통제적 양육행동: 5개국 비교 연구. *한국인구학*, 31(2), 45-76
-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정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35-946.
- 장휘숙 (2002). 청년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101-121.
- 조명환,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서울: 집문당.
- 조영주, 최해림 (2001).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과 성인애착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71-91.
- 조윤주 (2007). 생산적 활동이 여성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요구-조절-지지 모델의 적용.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Allen, J. P., McElhaney, K. B., Kuperminc, G. P., & Jodl, K. M. (2004). Stability and change in attachment security across adolescence.

- Child Development*, 75(6), 1792-1805.
- Ayyash-Abdo, H., & Alamuddin, R. (2007). Predictors of subjective well-being among college youth in Lebano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7(3), 265-284.
- Banse, R., & Kowalick, C. (2007). Implicit attitudes towards romantic partners predict well-being in stressful life conditions: Evidence from the antenatal maternity w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2(3), 149-157.
- Bartholomew, K. (1990). Avoidance of intimacy: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2), 147-178.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 Becker, B., Latendresse, S., Galen, B., & Luthar, S. (2000). *Parental attachment, peer relations, and academic competenc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Chicago.
- Billington, J., Baron-Cohen, S., & Wheelwright, S. (2007). Cognitive style predicts entry into physical sciences and humanities: Questionnaire and performance tests of empathy and systemizing.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3), 260-268.
- Bloom, F. J., & Bloom, F., S. (1987). *The psychology of separation and loss: Perspectives on development, life transitions, and clinical practice*(pp.232-266). The Jossey-Bass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San Francisco, CA, US: Jossey-Bass.
- Bowlby, J. (1969). Object relations, dependency, and attachment: A theoretical review of the infant-mother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40(4), 969-1025.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Bretherton, I. (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 3-35.
- Brody, L. R., & Hall, J. A. (1993). Gender and emotion. In M. Lewis and J. Haviland (Eds.), *Handbook of emotions* (pp.447-460). New York: Guilford Press.
- Cabrera, N., Tamis-LeMonda, C. S., Bradley, R. H., Hofferth, S., & Lamb, M. E. (2000). Fatherhood in the twenty-first century. *Child Development*, 71(1), 127-136.
- Creasey, G., Kershaw, K., & Boston, A. (1999). Conflict management with friends and romantic partners: The role of attachment and negative mood regulation expectanc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5), 523-543.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1), 34-43.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india, K., & Allen, M. (1992). Sex differences in self-disclosure: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2(1), 106-124.
- Feeney, J. A., Noller, P., & Hanrahan, M. (1994). Assessing adult attachment: Developments in the conceptualization of security and insecurity. In M. B. Sperling & W. H. Berman (Eds.), *Attachment in adults: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pp.128-152). New York: Guilford Press.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50-365.
- Fujita, F., Diener, E., & Sandvik, E. (1991). Gender differences in negative affect and well-being: The case for emotional intens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3), 427-434.
- Gilman, R., & Huebner, E. S. (2006).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who report very high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3), 293-301.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K.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464-1480.
- Greenwald, A. G., Nosek, B. A., & Banaji, M. R. (2003).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 An improved scoring algorith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197-216.
- Grossmann, K., Grossmann, K. E., Fremmer-Bombik, E., Kindler, H., Scheuerer-Englisch, H., & Zimmermann, P. (2002). The uniqueness of the child-father attachment relationship: Fathers' sensitive and challenging play as a pivotal variable in a 16 year longitudinal study. *Social Development*, 11(3), 301-337.
- Haller, M., & Hadler, M. (2006). How social relations and structures can produce happiness and unhappiness: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Social Indicators Research*, 75(2), 169-216.
- Hazan, C., & Shaver, P. R.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Kenny, M. E. (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1), 17-29.
- Kerr, L., Melly, A. M., Travea, L., & Pole, M. (2003). The relationship of emotional expression and experience to adult attachment styles. *Individual Difference Research*, 1(2), 108-123.
- Koo, J., Rie, J. & Park, K. (2004).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affect and subjective well-being. *Geriatrics and Gerontology International*, 4(1), 268-270.
- Lamb, M. E. (1976b). Interaction between two-year-olds and their mothers and fathers. *Psychological Reports*, 38(2), 447-450.
- Lapsely, D. K., Rice, K. G., & FitzGerald, D. P. (1990). Adolescent attachment, identity and

- adjustment to college; Implications for the continuity of adaptation hypothesi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8(5), 561-565.
- Ling, X., Jiang, G., & Xia, Q. (2008). Relationship between normal university freshmen's adult attachment towards different subjects and subjective well-being. *Chines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6(1), 71-73.
- Lopez, F. G. (1989). Current family dynamics, trait anxiety, and academic adjustment: Test of a family-based model of vocational ident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1), 76-87.
- Main, M., & Goldwyn, R. (1985-1995). *Adult attachment interview classification and scoring system*.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 Mallinckrodt, B. (2000). Attachment, social competencies, and interpersonal process in psychotherapy. *Psychotherapy Research*, 10(3), 239-266.
- Michalos, A. C. (1991).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Global report on student well-being: Vol. 1*. New York: Springer-Verlag.
- Mikulincer, M., & Orbach, I. (1995). Attachment styles and repressive defensiveness: The accessibility and architecture of affective mem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1), 917-925.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5). Attachment security, compassion, and altruism. *Psychological Science*, 14(1), 34-38.
- Moore, W. (1987). Parent-adolescent separation: The construction of Adulthood by late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3(2), 298-307.
- Nisbett, R. E., & Wilson, T. D. (1977). Telling more than we can know: Verbal reports on mental processes. *Psychological Review*, 84(3), 231-259.
- Nosek, B. A. (2007). Implicit-explicit relations. *Psychological Science*, 16(2), 65-69.
- Perlman, D. (2007). The best of times, the worst of times: The place of close relationships in psychology our daily lives. *Canadian Psychology*, 48(1), 7-18.
- Pietromonaco, P. R., & Carnelley, K. B. (1994). Gender and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Consequences for perceptions of self and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1(1), 63-82.
- Reis, H. T., & Gable, S. L. (2003). Toward a positive psychology of relationships. In C. L. Keyes & J. Haidt (Eds.), *Flourishing: The positive person and the good life* (pp.129-159). Washington, DC: APA Press.
- Ren, Z., Wang, D., Yang, A., Li, M., & Higgins, L. T. (2011). Implicit and explici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to mothers in a Chinese context.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9(5), 701-712.
- Ross, J., & Fuertes, J. (2010). Parental attachment, interparental conflict, and young adults emotional adjustment.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8(8), 1050-1077.
- Snell, W. E., Miller, R. S., & Belk, S. S. (1988). Development of the Emotional Self-Disclosure Scale. *Sex Roles*, 18(1), 467-485.
- Spangler, G., & Zimmermann, P. (1999). Attachment representation and emotion regulation in adolescents: A psychobiological

- perspective on internal working models. *Attachment and Human-Development*, 1(3), 270-290.
- Suhail, K., & Chaudhry, H. R. (2004). Predictors of subjective well-being in an eastern Muslim cultur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3), 359-376.
- Torquati, J. C., & Raffaelli, M. (2004). Daily experiences of emotions and social contexts of securely and insecurely attached young adul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9(6), 740-758.
- Veletanlic, M. (2007). *Assessing attachment models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Unpublished manuscript. Institutionen for beteendevetenskap, Hogskolan Kristianstad.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 Wearden, A. J., Perryman, K., & Ward, V. (2006). Adult attachment, reassurance seeking and hypochondrial concern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6), 877-886.
- Wilkinson, R. B. (2004). The role of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in the psychological health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6), 479-493.
- 1차원고접수 : 2013. 1. 28.
심사통과접수 : 2013. 3. 12.
최종원고접수 : 2013. 3. 23.

The relationship between explicit and implicit attachment to parent and subjective well-being in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Sang Mi An

Hee Jeong Bang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how the father-mother attach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differ according to gender. The study also investigated the different contribution of implicit and explicit father-mother attachment to subjective well-being in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204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gender difference in explicit mother avoidant attachment, implicit mother attachment and positive affect, life satisfaction. Female students felt more close to their mother in implicit and explicit attachment. The male students felt more positive affect and more satisfied with their lives. Second, explicit father-mother attachment were almost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subjective well-being, while no relationship in implicit parent attach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in male and female students. There were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female students, there was not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father-mother attachment and positive affect. When male students implicitly felt that they are secure, they felt touchable their father. Third, Only explicit father-mother attachment predicted three components of subjective well-being in both male and female. Male 's positive affect was predicted mother avoidant attachment. Parent avoidant attachment in male students and parent anxiety attachment in female influenced negative affect. Life satisfaction was predicted each poosite sex parent avoidant attachment in male and female.

Key words : *parent attachment, subjective well-being, university students, explicit and implicit attachment*